

정신장애인의 주도성 개념분석

김명희 · 전성숙 · 김미영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Proactivity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Concept Analysis

Kim, Myung Hee · Jun, Seong-Sook · Kim, Mi-Young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lear concept of proactivity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o provide basic evidence for mental health nursing. **Methods:**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Walker & Avant's conceptual analysis process. **Results:** Proactivity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s defined as the ability of obtaining self-determination by putting continuous efforts toward their recovery, overcoming social stigma, recovering in a positive way from being withdrawn from relationships, and gaining self-confidence and willingness that they can recover from their mental illness. Antecedents were found to be persistent disease management,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significant person. Consequences were found to be maintenance of a productive lif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ccurately define the vague concept of proactivity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contribute to mental health nursing related to proactivity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Mentally disabled person, Initiation, Concept analysi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주도성이란 자신의 삶을 주관적, 적극적으로 이끌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해 행동하며 스스로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Chi et al., 2007). 개인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시도의 방향은 다르지만 주도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해준다(Oh, 2003). 따라서 주도적인 삶을 사는 개인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획득하고, 가치실현을 위해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주어진 과제에 대해

창의적 사고를 발휘한다(Chi et al., 2007; Oh, 2003). 그러므로 주도성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생애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Oh, 2003).

정신장애인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개념을 내재화하게 된다(Kim & Jun, 2012). 이와 같이 내재화된 낙인은 회복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과 사회복귀의 기회를 박탈하고(Kim & Jun, 2012),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도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Koo, 2011).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신재활 영역의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신재활 프로그램 통해 정신장애인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삶에 대한 통제

주요어: 정신장애인, 주도성, 개념분석

Corresponding author: Kim, Mi-Young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 626-770, Korea.
Tel: +82-51-510-8359, Fax: +82-51-510-8308, E-mail: minocin@hanmail.net

투고일 2012년 8월 13일 / 수정일 2012년 10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19일

감을 가지며 자신을 자율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Kim, 2009).

그러나 정신보건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발휘하는 주도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정신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가의 중재연구가 대부분이다(Kim & Park, 2010; Ko et al., 2008). 정신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요소로 자존감, 의사결정 등의 향상을 보고하나(Kim & Park, 2010; Ko et al., 2008), 전문가의 중재에 의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부정적인 개념인 내재화된 낙인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Ko et al., 2008). 이것은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의 중재로 정신장애인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신장애인은 역량강화를 통해 직업재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달성하여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Kim & Park, 2010),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주도성을 발휘하면서 더불어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Koo, 2011).

그러나 정신보건 관련 문헌에서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이란 개념에 대한 정의나 속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단지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주도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을 측정한 연구가 1편 있을 뿐이다(Koo, 2011).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학, 발달심리학, 경영학 등의 타 학문과 간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도성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후 회복하여 직장생활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5명의 정신장애인과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의 주도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문헌고찰 단계

문헌고찰 단계에서는 proactivity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속성에 관심을 두고 본질적 의미고찰을 위해 사전적 의미와 학술문헌을 고찰하였다.

Proactivity를 주제로 국내문헌 검색을 위해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 정보를 검색하여 총 12편을 분석하였고, 국외논문 검색을 위해 PubMed와 CINAHL에서 ‘proactivity’ 또는 ‘proactive personality’를 주제로 발췌된 연구논문 중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13편을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총 2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본질적 의미 탐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현장연구 단계

정신장애인과 면담은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회복한 후 취업에 성공하여 1년 이상 직업유지를 하는 5명과 면담하여 주도성에 대한 현상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B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담당하면서 취업알선 및 사례관리를 하였다. 현장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연령은 25~45세였으며, 성별은 남 3명, 여 2명이었다. 진단명은 모두 조현병이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에 참여하는 도중 언제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둘 수 있음을 알리고, 면담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 필사하였다. 그리고 필사한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상세하게 읽었으며, 내용 중 참여자에게 확인해야 하거나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재차 질문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면담은 각 참여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휴게실이나 작업실 내의 조용한 공간에서, 평균 50분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의문 사항에 대해 평균 10분 정도의 전화면담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면담은 대상자 1인 마다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각 대상자의 내용이 반복되며,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5명의 면담에서 종료되었다. 면담이 종료된 후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3. 개념분석 단계

본 연구는 주도성(proactivity)에 대한 개념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 (2005)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개념을 선정하고, 개념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
- 문헌고찰과 현장연구를 통해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하고, 잠정적 기준목록과 속성을 결정한다.
- 모델사례를 제시한다.
- 부가사례(경계사례, 반대사례, 연관사례, 창안된 사례)를 제시한다.
-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 경험적 준거를 결정한다.

연구결과

1. 정신장애인 주도성 개념에 대한 확인

1) 문헌고찰에서의 주도성 개념 사용 확인

(1) 사전적 정의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기 위해 먼저 ‘정신장애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12). ‘주도성’은 주도적인 입장에 서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12). 여기서 주도적 입장이란 주동적인 위치에서 어떤 일을 이끄는 것, 어떤 관점이 바탕을 이루는 기본 태두리의 생각이다(Daum communications, 2012).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결정, 주장이 되어 이끌거나 지도함, 진취 정신 등이 있다(Wikipedia, 2012). 또한, 영어로 주도성(proactivity)은 initiativeness, self-leadership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면서, 단지 반응보다는 미래의 상황에 변화하고 나아지도록 행동하는 것이며, 타인의 계속적인 감독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스스로 강한 동기를 갖고,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해내는 능력이다(Wikipedia, 2012).

(2)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개념의 사용범위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은 정신장애인과 주도성의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정신장애인은 명확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주도성은 각 학문마다 특성을 추상적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문헌고찰이 시도되었으며, 정신재활분야의 문헌에서는 사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학

문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도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① 타학문에서의 개념 사용

유아교육에서 주도성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유아를 주도적인 유아로 설명하였다(Shin & Shon, 2011). 유아의 주도성이란 놀이 상황에서 유아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거나 교사가 제시한 놀이 환경을 창의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Shin & Shon, 2011). 또한, 자신의 삶을 주관적, 적극적으로 이끌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능력인 주도성은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Oh, 2003),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이 필요하며(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이런 주도성은 사회적 교환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Kim & Kwak, 2004; Podsakoff et al., 2000). 즉, 유아의 주도성은 자기 삶에 창조적 변화를 기대하며 스스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며(Chi et al., 2007),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소로 본다(Kim & Kwak, 2004; Oh, 2003). 또한, 유아를 능동적이고 탐구심이 강한 학습의 주체로 보고 아동 중심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자기 주도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놀이문화부터 변경하여, 교수-학습에 있어 수행과정의 단계 설정에서부터 유아의 주도성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였다(Oh, 2003; Shin & Shon, 2011).

심리학에서는 후기 아동기를 자율성을 획득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여 주변환경을 탐색하면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어 하는 시기로 보며, 이 시기에 자율성, 주도성 등의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Oh, 2003). 또한, 아동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며,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주도적 존재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Chi et al., 2007). 이러한 발달과업은 생애전주기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청년기에서는 미래확신성과 주도성에 대한 개념을 강조한다(Park, 2004). 또한, 성공적인 노년 삶을 위한 건강증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지도력은 주도성에 근거하여 나타난다(Kahana, Kahana, & Zhang, 2005).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주도성을 인간의 충동적이고 비합리적 본능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자아의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초자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사회적 가

치를 내면화하면서 주도성이 발달한다(Shaffer, 1999). 또한, 인지발달이론에서도 주도성의 발달 근원을 생물학적 성숙, 활동, 사회적 경험, 평형화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Shaffer, 1999).

경영학에서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런 특성을 주도성(proactive personality)으로 설명한다(Bateman & Grant, 1999). 현재 상황 및 상태를 변경하는 의도적인 노력에 특정 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Bateman & Grant, 1999), 가치경향적 능력, 대인관계 기술, 조직능력, 오픈 마인드를 포함한 특정성격이 있는 경우 주도성을 발휘한다(Thomas & Lance, 2008). 조직에서 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기회를 파악하고, 행동하며, 적극성을 보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는 경향이 있다(Grant & Parker, 2009; Hwang & Tak, 2011). 조직 내 개인의 주도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이나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직무 관련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Podsakoff et al., 2000). 또한, 건설적 변화에 초점을 둔 과외활동, 변화를 반영하는 개인적 성취, 동료들에 의한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어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Hwang & Tak, 2011). 이러한 주도성은 개인 및 조직의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조된다(Grant & Parker, 2009; Hwang & Tak, 2011; Podsakoff et al., 2000).

사회복지학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1편의 연구가 있다. 정신장애인을 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경영학의 주도성 도구를 사용하여 7가지의 하위척도인 변화에 대해 긍정적 인지, 적극적 인지, 신념과 추진력, 기회탐색, 계획과 목표지향, 책임, 인내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Koo, 2011). Koo (2011)의 연구결과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장애인 측면에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속성인 주도성에 대한 비교 연구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측면에서는 나이, 이용 유지기간, 증상 정도가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았고, 정신장애인 측면에서는 정신재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주도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간호학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학에서는 주도성의 행위 특성을 간호학생으로 한정하여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타인의 조력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진

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Ha, 2011; Kwon, 2011). 이에 주도적 학습에 대한 측정도구로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측정하였다(Ha, 2011; Kwon, 2011).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주도성(proactivity)은 주도적 행동을 취하는 개인들이 가지는 차이를 나타내는 기질적 구성개념으로(Koo, 2011), 학습에 대한 특성 뿐만 아니라 진단받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 및 도구가 없는 상태이다.

2) 현장에서의 주도성 개념 사용 확인

문헌고찰에서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타학문에서의 주도성 개념에서 정신장애인의 주도성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함에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현장 연구가 필요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원하는 삶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직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였고, 이에 대한 면담 중에 대상자들이 주도성이 발휘되어 좋아진 것 같다는 표현을 하여 “그렇다면 주도성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로 질문을 마무리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 자료분석을 위해 필사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을 분석한 결과 총 80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의미 있는 진술의 구절과 문장을 철저히 읽으면서 의미가 서로 유사한 것을 묶고, 다시 원자료를 읽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총 9개의 주제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요인 3개, 속성 5개, 결과 1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주제를 구성하고 주제모음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과 연구진들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검토하였다. 3개의 선행요인은 ‘적극적인 질병관리’, ‘적극적인 참여’, ‘의미 있는 사람의 지지’, 5개의 속성은 ‘꾸준한 노력’, ‘낙인 극복’, ‘관계회복’, ‘자신감 획득’, ‘독자적인 결정력 획득’, 1개의 결과는 ‘생산적인 삶’이었다.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이란 정신과적 증상을 치료하는 단계에서 의미 있는 사람의 지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질병 관리와 참여를 통해, 정신재활과정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여, 철회된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병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짐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1) 범주 1: 꾸준한 노력

꾸준한 노력은 정신질환 발병 후 회복과정과 재발예방을 위해 터득한 대처능력 즉, 사회기술, 자기주장, 스트레스 관리, 재발경고 증상관리 등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든 프로그램이든 직장이든 인내하고 참아서 계속 해야, 뭐를 해도 하죠. 보호작업장에서 배운 인내력이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아요(참여자 1).

정신보건센터 2년 다니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잖아요(참여자 5).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제가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자기주장 훈련 받으면서 차츰 표현이 늘었으니깐...(참여자 3).

(2) 범주 2: 낙인 극복

낙인극복은 정신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조현병이 만성화되면서 가족들도 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했어요. 그런데 차츰 저와 가족이 조현병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서 달라진 것 같아요. 직업도 생기고, 취미생활도 하고, 정상인처럼 생활을 하게 되니깐 사회적 인식이 두렵지 않아요. 이전에는 병이 소문날까봐 가족들도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는 가족강사로 활동하고, 저는 정신장애인 직업경험 수기 소감을 발표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참여자 3).

아무도 몰랐는데, 직업을 못 구해서 장애등록하고 취업을 할 때, 정신장애인이라는 낙인이 붙었어요. 근데 직장에 서 일을 잘 하고 계속 다니니깐, 직장동료들이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참여자 5).

대중매체에서 정신병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면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내 주위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이상하다고 안 해요. 아마 내가 이야기를 잘 하고, 설명해주었기 때문이죠(참여자 4).

(3) 범주 3: 관계회복

관계회복은 믿음을 바탕으로 가족, 전문가, 동료 등의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가족하고 대화가 없었으니... 밥 혼자 먹어보세요. 취업하고 나니깐 집에서 대우가 틀려지더라고요. 전에는 풀만 줬는데, 고기반찬도 주고, 밥도 가족들과 같이 먹어요(참여자 3).

제가 선생님 말 안 들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 찾아가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참여자 4).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하니깐, 반장이 싫어하더니만, 나중에는 저보고 물량 확인도 시키고 믿어주더라고요(참여자 5).

(4) 범주 4: 자신감 획득

자신감 획득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받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참여자 3).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참여자 1).

처음 일해서 월급을 받고 나니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참여자 5).

(5) 범주 5: 독자적인 결정력 획득

독자적인 결정력 획득은 자신의 생각, 행동에 대해 스스로 선택 및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제는 혼자 결정도 하고, 물건도 구입해요(참여자 1).

내가 프로그램도 선택했고, 변화되는 다른 환자들을 보고, 직장도 체험하면서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어요(참여자 3).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참여자 2).

2.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

1) 잠정적 기준목록

- ① 상태를 변경하는 의도적인 노력에 특정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Bateman & Crant, 1999; Crant, 2000, 범주 1).
- ② 사회적인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작용의 요소이다(Oh, 2003; Shin & Shon, 2011, 범주 2).

- ③ 놀이 상황에서 친밀한 태도를 보인다(Shin & Shon, 2011, 범주 3)
- ④ 자존감 및 새로운 자기개념의 발전 가능성이다(Kim, 2009, 범주 4).
- ⑤ 자립적인 자아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Grant & Parker, 2009; Hwang & Tak, 2011; Shin & Shon, 2011, 범주 5).

2)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속성 확인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은 정신재활과 지역사회 통합 과정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낙인을 극복하고,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여, 자신감을 획득하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취업생활 유지는 물론이고, 월급관리, 취미생활, 부모님께 효도하기 등과 같은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속성은 꾸준한 노력, 낙인극복, 관계회복, 자신감 획득, 독자적인 결정력 획득이었다.

3. 개념의 모델사례 구성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관한 개념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실제 생활의 예가 될 수 있다(Walker & Avant, 2005).

정신장애인 35세 H씨는 28세에 발병한 후 의사의 처방된 약을 잘 복용하면서 재발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였다. 어머니는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여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아 아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H씨는 아침마다 일어나기 어려워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깨우는 등의 문제로 마찰이 심했다. H씨는 점차 인간관계 훈련, 사회기술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알람시계를 맞춰 일어나게 되었다(1, 5). H씨의 태도가 바뀌자 어머니의 잔소리도 줄어들게 되면서 관계가 호전되었다(3). 프로그램 진행자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었다(4). 이후 술 선수범하여 새로운 회원이 등록하면 일일 도우미에 자원하며, 반장역할도 맡게 되었다(1, 4). 6개월 동안 다양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성을 보여, 전문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센터의 맞춤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권유받았을 때, 6개월 과정의 제과제빵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다(5). 제과제빵 훈련과정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부딪치면서 장애가 있었으나, 여러 대처 방법들을 동원하

여 극복을 하여(2), KR식품회사에서 현장적응훈련을 하게 되었다. 식품회사의 직원들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기도 하였으나, 사례관리자의 상담과 지원으로 일을 꾸준히 하면서(1),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었고(5),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하였다(3). H씨는 1개월 간의 현장 적응훈련을 마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병을 설명하고, 정신장애인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당당함을 보였다(2, 5).

위의 모델 사례는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모든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위해 꾸준한 노력, 낙인극복, 관계회복, 자신감 획득 및 독자적인 결정력을 통해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하여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개념의 부가사례 개발

다음 사례들은 경계사례, 반대사례, 연관사례들로 어떠한 이유로 모델사례가 될 수 없는가를 보여주며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속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1) 경계 사례

모델사례에서 제시된 모든 개념의 속성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고 개념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일부를 포함하거나 비슷하지만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로(Walker & Avant, 2005), 이 예를 통해서 왜 모델 사례가 될 수 없는지가 보여지고 실제 개념의 명확하고 중요한 속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40세의 정신장애인 B씨는 30세 때에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재발하여 2차례 입원치료를 한 경험이 있다. 38세부터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조현병에 대한 병식이 생겨, 증상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1). 재발 경고증상에 대한 대처, 약물 교육, 인간관계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성공적인 과업 완수로 자신감을 회복하였다(4). 2년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모범적인 태도로 가족 및 전문가에게 자신의 의견과 계획을 설명할 수 있었다(3, 5). 그러나 증상이 심한 정신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적응 훈련 시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으며, 자신에게도 꼬리표가 붙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포기하고 평소에 관심 있던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로 결정하였다(5).

위의 경계사례는 꾸준한 질병관리,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족 및 전문가와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독자적인 결정력을 보

였으나, 낙인은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2) 반대사례

그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로서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전혀 들어 있지 않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이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의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반대상황을 설명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하는 개념의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어 사용된다(Walker & Avant, 2005).

38세 정신장애인 C씨는 밤낮이 바뀌어 오전에는 계속 잠만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 식사를 한다. 자기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며, 가족과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친척들이 방문해도 무관심하다. 어머니는 다 큰 녀석이 매일 같이 집에 있으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이로 인하여 C씨에게 잔소리를 하면 C씨는 기분만 상해 집 근처 공원을 배회한다.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거나 쑥덕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위축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기 방에 들어간다.

위의 사례는 정신장애인 주도성과는 반대가 됨을 알 수 있다.

3) 연관사례

분석하는 개념과 아주 유사하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개념 간에는 관계가 있어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속성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 개념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40세의 정신장애인 K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블록 개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의 권유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2년 동안 결근이 한 번도 없었다.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인보다 불량점검에 능숙하여 우수 직원 표창을 받아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회사에서는 관리자의 업무 지시에 충실하며,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 월급도 어머니가 대신 관리하여, K씨는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서 쓴다.

이 연관사례는 꾸준한 노력으로 어머니와 직장 상사와의 관계회복, 자신감 획득하여 정신장애인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주변인과 상황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의무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창안된 사례

우리의 실제 경험 밖에서 상상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구성

된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37세 정신장애인 J씨는 첫 발병 후 질병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며 자신의 병에 대한 병식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정신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았으며, 그 기관의 전문가 도움으로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집중력이 부족하여 참고 인내하기 힘들었지만, 차츰 집중력과 참을성 등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작업량을 체크해 나가기도 하였다. 성실한 자세로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전문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J씨는 본격적인 구직과정으로 3주간의 현장훈련을 받게 되었다. 첫 주에는 불량 발생과 주위 동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불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둘째 주에는 동료들에게 정신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찍 출근을 하였으며, 점심시간에도 동료와 함께 식사하면서 정신재활과정을 설명하였다. 셋째 주에는 고용주와 의논하여 사업장 취업을 결정하였으며, 취업이 확정되자 그 동안 도움을 받았던 가족과 전문가에게 감사함을 보였다.

이 창안 사례는 정신장애인 주도성의 모든 개념을 함유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주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질병관리,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문가의 지지를 받아왔다.

5. 정신장애인 주도성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하며, 결과는 그 개념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이나 사건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결정하면 그 개념의 속성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Walker & Avant, 2005).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의 선행요인과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바람직한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의 선행요인은 적극적인 증상관리, 적극적인 참여, 의미있는 사람의 지지(Koo, 2011)이며, 결과는 생산적인 생활유지이었다(Figure 1).

6. 경험적 준거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준거는 개념이 발생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범주이다(Walker & Avant, 2005). 즉, 경험적 준거란 중요한 속성에 대한 경험적 대상을 실제 세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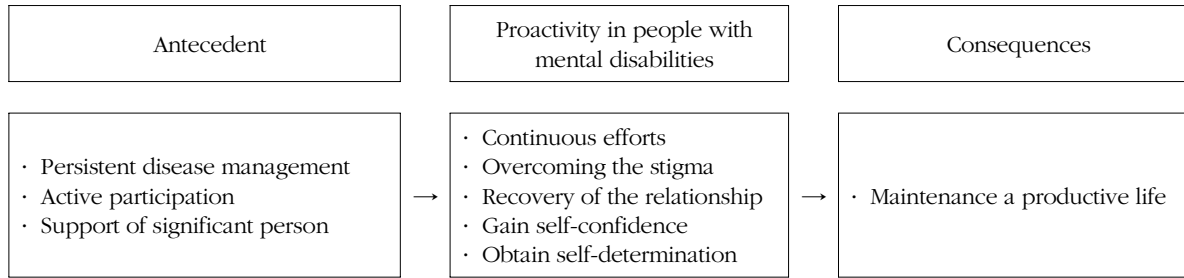


Figure 1. Attributes, antecedent and consequences of proactivity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서 찾아보는 작업으로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중요한 속성과 경험적 준거는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개념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의 주도성(proactivity)과 다른 학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도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신장애인의 주도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유아교육학과 심리학에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연구되었으며, 유아의 주도성이란 적극성(Chi et al., 2007; Shin & Son, 2011), 성취동기(Oh, 2003; Shin & Shon, 2011), 상호작용(Kim & Kwak, 2004; Oh, 2003) 등으로 구성된다. 즉, 유아의 주도성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성과 성취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경영학의 주도성이란 기회를 파악(Grant & Parker, 2009), 의미있는 변화에 대한 인내(Hwang & Tak, 2011), 자기관리 행동(Grant & Parker, 2009; Hwang & Tak, 2011) 등으로 구성된다. 즉, 조직에서 개인의 주도성은 경력관리를 위해 개인이 자기관리하는 능력으로 기회를 파악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미있는 변화를 하면서 인내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에서 주도성이란 긍정성, 적극성, 신념과 추진력, 기회탐색, 계획과 목표지향, 책임, 인내를 포함한다(Koo, 2011).

이에 반해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이란 꾸준한 노력, 낙인극복, 관계회복, 자신감 획득, 독자적인 결정력 획득의 4가지 속성을 갖고 스스로 생산적인 활동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자기주도적 개방적 접근이다. 꾸준한 노력이란 혼란스러운 정신과적 증상에서 벗어나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이며, 낙인극복이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이다. 관계회복이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위축, 철회된 대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자신감 획득이란 정신건강관리를 통해 병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독자적인 결정력 획득이란 조현병의 증상으로 다양한 정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면서 가족이 의사결정을 하다가,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신념이 회복되면서 결정권을 가족으로부터 찾아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주도성과 다른 학문의 주도성의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발생하는 속성 중 일부는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은 질병 이후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재활을 통해 의미있는 사람의 지지로 강화되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정신장애인의 주도성 개념의 선행요인은 적극적인 질병관리, 적극적인 참여, 의미있는 사람의 지지였다. 적극적인 질병관리란 약물에 대한 지식과 증상관리가 필수적인 요인으로(Bisbee, 2000),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증상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것으로 정신장애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처기술이다(Cho, 2000). 일차적으로 약물교육과 증상관리가 정신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약물교육과 증상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여기에 취약성-스트레스-대응능력 모형이 교육적 접근법의 이론적 지지를 제공한다(Bisbee, 2000). 이에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장애인에게 약물과 증상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여, 약물복용의 필요성과 올바른 약물지식, 약물 부작용의 이해, 증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 증상의 대처법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간호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며, 사회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인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질병관리를 통해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Ko et al., 2008). 적극적인 참여란 정신장애인의 재활과정의 대인관계, 사회기술, 문제해결능력 등의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Koo, 2011),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신재활 과정에서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발병하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에(Ko et al., 2008), 정신장애인의 재활과정에서 대인관계, 사회기술, 문제해결능력 등 대처능력의 향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신보건간호사는 체계적인 교수법을 개발하여 정신장애인의 동기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미있는 사람이란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가족, 치료진, 친구, 이웃, 종교인, 직장동료, 고용주 등을 의미한다(Lee, 2003). 정신장애인은 특히, 가족의 믿음으로부터 자신감을 얻고, 가족에 대해 고마워하며,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가족의 지지는 중요하다(Byun & Jun, 2009). 따라서 정신장애인 가족은 적절한 치료에서부터 정신사회재활에 이르기까지 자원이 빈약한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발병 초부터 회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신보건간호사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는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결과는 생산적인 생활 유지이다. 정신장애인의 생산적인 생활이란 취미생활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Choi, 2009).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정신장애인이 주도성을 갖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사람의 지지로 적극적인 질병관리와 사회적 참여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가 본 연구 한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신장애인 주도성 개념이 공유되기 위한 반복연구와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주도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05)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고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에 대한 선행요인을 조절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주도성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도성의 선행요인은 적극적인 질병관리, 적극적인 참여, 의미 있는 사람의 지지이며, 속성은 꾸준한 노력, 낙인극복, 관계회복, 자신감 획득, 독자적인 결정력 획득, 결과는 생산적인 삶이었다.

REFERENCES

- Bateman, T. S., & Crant, J. M. (1999). Proactive behavior: Meaning, impact, recommendations. *Business Horizons*, 42, 63-70.
- Bisbee, C. C. (2000). Psychiatric patient education. *Psychiatric Times*, 17(4), 23.
- Byun, E. K., & Jun, S. S. (2009). Family support experience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219-229.
- Chi, S. A., Kim, H. J., Kim, M. S., Lee, G. S., Cho, E. J., Lee, S. G., et al. (2007). A study on the quality of child-teacher relationship and young children's initia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9(6), 65-84.
- Cho, E. Y. (2000). *Study on the stigmatization process toward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H. C.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empowerment practice perceived by employed with mental illness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6(3), 197-217.
- Crant, J. M. (2000). Proactive behavior i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26, 435-462.
- Daum Communications. (2012). *Daum dictionary*. Retrieved February, 2012, from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35523&q=%EC%A3%BC%EB%8F%84>
- Grant, A. M., & Parker, S. K. (2009). Redesigning work design theories: The rise of relational and proactive perspectives.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3, 273-331.
- Ha, J. Y. (2011). Learning style,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357-366.
- Hwang, A. Y., & Tak, J. K. (2011). A relation of proactive personality to career success: A mediating role of protean career.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4, 409-428.
- Kahana, E., Kahana, B., & Zhang, J. (2005). Motivational antecedents of preventive proactivity in late life: Linking future orientation and exercise. *Motivation and Emotion*, 29, 443-464.
- Kim, M. G.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empowering social interaction on social behavior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Mental Health & Social Work*, 33, 5-35.
- Kim, M. H., & Kwak, K. J. (2004). Responsiveness and initiative through infant-mother interaction in the social toy play.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17(2), 19-35.
- Kim, Y. Y., & Park, H. S. (2010). The effects of insight and empowerment on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for patients with

- schizophren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11-21.
- Kim, M. Y., & Jun, S. S. (2012). Factors affecting on internalized stigma of schizophrenia pati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 108-117.
- Ko, K. H., Yang, S. H., Kim, Y. A., Kwon, M. S., Bang, S. H., Lee, J., M., et al. (2008). The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for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on their empowerment and internalized stigm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 491-499.
- Koo, J. H. (2011). *The effects of proactivity in mental health social work practice on the recovery of the person with psychiatric dis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Busan.
- Kwon, M. S. (2011).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389-396.
- Lee, K. J.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13(4), 21-51.
- Oh, S. H. (2003). An investigation on early childhood initiative-ness education.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8(3), 227-251.
- Park, A. C. (2004).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aspects of ego-identity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 301-312.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Paine, J. B., & Bachrach, D. G. (2000).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26, 513-563.
- Shaffer, D. B.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NY: Tomson Learning.
- Shin, E. M., & Shon, B. Y. (2011). The mea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recognition of child initiativ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8, 465-492.
-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12).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Retrieved July, 2012, from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Thomas, K. M., & Lance, C. E. (2008). Intentions to initiate mentoring relationships: Understanding the impact of race, proactivity, feelings of deprivation, and relationship roles. *Journal of Psychology*, 148, 727-744.
- Walker, L. O., & Avant, K. C. (200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Wikipedia. (2012). *Wikipedia dictionary*. Retrieved July, 2012, from <http://en.wikipedia.org/wiki/Proactivity>